

국제대회 관련 공지사항

올림픽을 앞두고 예상을 초과하는 외국 선수들의 많은 참가 신청으로 인해 대회 일정 및 코트 사정을 (부산 실내연습코트 3면포함 총 13면, 서울 연습코트 3면포함 총 11면) 고려할 때 부산과 서울은 BC 드로의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각 조직위원회가 아쉬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2023년도에 부산, 대구, 서울의 각각의 총 경기수가 110~120 경기였는데 (BC포함) 비해서 금년도에는 200 경기가 (BC제외) 넘어가고 있어서 정해진 일정내에 경기를 다 소화하기에 벅찬 상황입니다.

- 드로 사이즈 (국제연맹 규정)

- (1) 부산 : 남자메인 (24) / 남자세컨 (24) / 여자메인 (24) / 쿼드메인 (24)
- (2) 대구&서울 : 남자메인 (32) / 남자세컨 (32) / 여자메인 (24) / 여자세컨 (16) / 쿼드메인 (16) / 쿼드세컨 (16)

- 지금 현재의 남자부 Cut-Off (컷오프) Line

- (1) 부산 : 첨부한 Entry List 참조 바랍니다.
ITF 랭킹 기준 이원희 선수가 (206위) 세컨드로 대기 1번입니다.
(이원희 선수부터 그 아래로는 다 BC드로에 해당됩니다)
- (2) 대구 : ITF 랭킹 기준 김건훈 선수가 (347위) 세컨드로 대기 1번입니다.
- (3) 서울 : ITF 랭킹 기준 최귀동 선수가 (328위) 세컨드로 대기 1번입니다.

대구하고 서울은 공식적으로 마감후에 리스트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8일)

현재 국내선수들이 세컨드로에도 너무 많이 못 들어간 관계로 대구와 서울의 경우 24드로인 세컨드로를 32드로로 늘려달라고 국제연맹에 요청해서 다행히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부산은 불가) 이에따라 따라 8명이 추가로 세컨드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Move Up / Move Down

- 올려드린 리스트는 현재의 상황이며 대회 시작 2주전까지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기에 혹시 취소하는 해외 선수들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랭킹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메인드로 혹은 세컨드로인가에 관한 결정은 대회 시작 1주전의 랭킹으로 정하긴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경우 별도의 국제 대회 참가 일정들이 없는 관계로 현재의 단식 랭킹 순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복식랭킹 및 복식 참가

- 복식은 단식 랭킹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단식에서는 메인/세컨드로에 들지 못했어도 복식 랭킹이 있는 선수들은 대회에 복식만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복식 랭킹을 살펴보시고 파트너와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식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경기전날 레퍼리 싸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부산오픈 여자부 및 쿼드부

- 부산은 현재 여자 27명, 쿼드 29명 (예정) 이기에 규정에 따라 메인드로 참여를 위한 예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대회 직전까지 취소하는 외국선수가 없고 쿼드 판정 신청한 선수들이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중에 가능한 선수들은 의무분류가 끝나고 3월 19일 (화) 오후에 예선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12시전까지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취소 선수가 나온다면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진은 당일에 추첨합니다.

● 대구오픈 BC드로

- 코트 숫자가 그나마 좀 여유가 되는 관계로 대구만 유일하게 BC드로를 개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신청한 선수중에서 세컨드로에 못 들어갈 선수까지 포함하면 19명입니다. 향후에 정확한 드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드로로 통합 진행 예정)

- 대구오픈 참가신청
 - 부산하고 서울에 신청하고 대구는 참가 신청을 안 했는데 BC드로의 미개최로 인해서 대구로 변경 신청하고 싶은 선수들을 위해 대구오픈 국내 선수 신청을 서울과 같이 3월5일(화) 1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추가 신청하실 선수들은 참고 바랍니다.
- 참가 철회

3개의 국제 대회중 1개라도 신청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참가를 철회하고자 하는 선수들은 최현정 레퍼리에게 (010-9118-3155) 카톡이나 문자로 반드시 **3월 5일(화) 18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내 선수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싶지만 국제 대회 규정상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24.2.27

부산오픈/대구오픈/서울코리아오픈 조직위원회